

# 光则日那



**1952년 4월 20일 창사** 대표전화 (062)222-8111 kwangju.co.kr 제19776호 1판 (음력 6월 11일) 2014년 7월 7일 월요일

## '지긋지긋' 호남소외…힘합쳐 극복해야

호남, 상생이 미래다 🯀 嶐 灰 광주일보의 제안

#### <1> 광주·전남·전북 하나로

지난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가장 큰 특 징은 '상생'을 강조했다는 점이다. 지난 20 년 동안 광주와 전남·북 광역자치단체장 은 상호 협력과 지원보다는 각자 경쟁과 갈등에 지역 역량을 쏟았다. 하지만 그 결 과는 참담한 수준이다. 인구 감소, 지역인 사 소외, 정치·경제력 감퇴, 미래 비전 상 실 등 갈수록 호남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다.

#### 소모적 경쟁·갈등이 부른 정치·경제적 퇴보 이제 그만 미래비전 공유·역할 나누자

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호남 발전의 기반 을 '상생'에서 찾자는 의미에서 '호남, 상생 이 미래다'를 대 주제로 ▲하나의 호남 ▲ 지역기반 ▲지역산업 ▲지역인재 등 4개 소 주제를 정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 대로 분야별 담론을 엮어내고자 한다.

호남 소외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. 기 반시설 불균형 속에 산업·문화·편의시설 등의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, 인구 규 모에 의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면 서 이러한 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다.

중앙정부 내 호남 인맥이 사라지면서 그 나마 '형평성'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기 대하기 어렵게 됐다. 호남에 기반을 둔 새 정치민주연합 역시 '지역색 극복'에 나서 면서 주요 보직에서 호남 인물이 의도적으 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올 초 지역 한 국회의원이 광주 거주 성 인 남녀 1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호남 살리기 광주시민 여론조사'에서 시민 10 명 중 6명 가량은 '호남은 현재 위기 상황' 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응 답자의 58.3%가 호남이 위기이며, 38.2% 가 '정권 차원의 차별과 소외'가 그 원인 이라고 답했다. 이어 호남 위기의 원인을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지역주의(25. 2%), 호남의 정치력 약화(19.4%), 위기 극 복 동력 상실(9.7%) 순으로 꼽았다. 이명 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

지 중앙정부 내 호남 인맥의 소멸이야말 로 극단적인 '호남 소외'를 상징하고 있

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출신 장관은 단 3 명에 불과하며, 청와대는 물론 정부 주요 요직에서도 호남 인사를 찾아볼 수 없다. 정부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・국장 은 물론 과장급에서도 지역 출신은 극소 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직을 전전하고 있 다. 이러한 소외 정책과 함께 지역 내에서 의 무관심 탓도 크다.

한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은 "위에서 끌 어주는 사람도, 지역에서의 별다른 지원책 도 없어 실력만으로 어필할 수 밖에 없는 실정"이라며 "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호남 은 지역 인맥 관리가 부실한 편"이라고 토 로하기도 했다. 〈2면으로 계속〉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## 알립니다

#### '월요광장'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

광주일보 대표칼럼 '월요광장'이 오늘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찾아갑니

경제, 문화, 인권 등 사회 각 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다양한 사 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시의적절 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. 날로 심화하고 있는 세대간, 계층간 갈등에 대해 통찰하고, 소통의 가능성 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

광주일보 '월요광장'에 독자 여러분 의 변함 없는 관심 바랍니다.











이상면 교수

이승권 교수

홍상표 원장

#### ◇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

- ▲전남대 의대 ▲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
- ▲아나파 의원 원장 및 (재)진실의 힘 이사

#### ◇이상면 광주대 교수

- ▲외환은행 글로벌마켓 영업본부장 ▲한국FOREX CLUB 회장
- ▲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장 ▲전라남도 정무부지사

#### ◇이승권 조선대 교수

- ▲고려대 불문과 ▲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▲(사)아시아문화중심 도시지원포럼 이사 ▲(재)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사
- ◇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
- ▲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▲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
- ▲YTN보도국장 ▲프라임뉴스 앵커

光则日報社

배심원들의 한 표 행사

6일 오후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7·30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나주·화순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줄을 서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# 순천·곡성 서갑원, 나주·화순 신정훈

#### 새정치연합, 7⋅30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

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순천·곡성 보궐 선거 후보로 서갑원 전 의원, 나주·화순 재 선거 후보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각각 선출했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이날 오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순 천 ·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선출대 회에서 서 전 의원은 선거인단 484명이 참 여한 투표에서 총 269표(57.35%)를 얻어 186표(39.65%)를 획득한 노관규 전 순천

시장을 제쳤다. 고재경 후보는 14표를 얻 는데 그쳤다.

선호투표제로 실시된 이날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700명 중 484명(유효투표 469, 무효투표 15)이 참여했으며 서 전 의원은 1차에서 과반을 넘겨 3위 후보의 차순위표 합산 과정도 거치지 않고 후보로 선출됐

이에 따라 서 전 의원은 순천 · 곡성에서



신정훈 후보

서갑원 후보

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,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, 무소 속 구희승 후보 등과 맞붙게 됐다.

또 같은 시간 열린 나주·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선출대회에서는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국민여론조사 50%와 공론 선 거인단 투표 50%가 반영된 경선에서 53% 를 얻어 47%를 획득한 최인기 전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.

신 전 시장은 여론조사에서는 44.6%로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61.3%로 월 등히 앞서면서 합계 53.0%를 득표, 승리 했다. 반면 최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55.4%로 앞섰지만, 선거인단 투표에서 38.7%에 그치면서 합계 47.0%를 획득, 후 보가 되는데 실패했다

이에 따라 신 전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 인 김종우 전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과 본 선 대결을 벌이게 됐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## 올 수능 11월 13일 시행 … 8월 25일부터 원서접수

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13일 목요일 시행되고, 원서 접수는 8월25일 부터 시작된다.
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'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'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〈관련기사 7면〉

이번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8월25일 (월)~9월12일(금) 13일간이며, 원서를 낸 후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 는 기간은 9월5일(금)~12일(금) 4일간 이다. 성적통지표는 12월3일(수) 수험생

에게 배부된다.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의 경우 통합형 으로 전환되고, 국어·수학 영역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된다. 단 수험 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국어·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.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최 대 2과목, 직업탐구는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.

시험은 1교시 국어(A/B형), 2교시 수 학(A/B형), 3교시 영어, 4교시 사회·과 학·직업탐구, 5교시 제2외국어·한문 순 서로 진행된다. 영어에서 듣기 문항이 22개에서 17개로 줄었다.

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되는 비 율은 예년처럼 70% 수준이다. 문항당 배점은 국어·영어·탐구 영역은 2~3점, 수학은 2~4점, 제2외국어·한문은 1~2

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, 4개는 4만2000원, 5개는 4만 7000워이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